

**2024 년 새해특별새벽기도회**  
**(1/4/2024, 목)**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에베소 교회(3)**

**찬양:** 314(511)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요한계시록 2:4-7

**말씀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며 회개하게 하신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더 잘되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히 12:6(공동번역 개정판) -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3) 에베소 교회가 책망 받은 내용들. 계 2:4-5 -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5 절에 나오는 대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 그 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던 그 모습, 처음의 열정 등을 의미하는 “처음 행위”를 잃어 버렸다. 예수님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연결하여 말씀하심으로, 에베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셨다. 주를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열정도 식고, 헌신도 식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신 6:5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30:2 -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 . . 수 23:11 -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엡 6:24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때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라고 물으시며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 처음 행위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성숙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고, 처음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안된다. 식어졌을 때는 다시 뜨거워져야 하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일어나라고 촉구하신다. 우리는 주를 향한 처음의 사랑, 순수한 믿음, 깨끗한 신앙, 겸손하면서도 쉽게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죄악된 이 세상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갈망을 앗아가며, 주님께 나를 드리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할 영과 육의 에너지들을 다른 곳에 쏟게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떠나 버리는 것이다(딤후 4:10).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신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5 절)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1) 우리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에 간직하다’, ‘염두에 두다’인데, 본문의 문법 구조는 사려 깊게 계속 생각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 구절의 표현대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만일 어떤 모습, 자리 등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떨어져 나온 지금의 나의 모습을 계속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성찰을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명히 발견하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떨어져 나온 상황을 깨달았다면 내가 떨어져 나오기 전의 모습, 다시 말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원래의 모습, 원래의 자리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그것을 다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 된다.

**(2)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손’은 ‘~후에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과 몸을 완전히 돌이켜 변화해야 한다. 회개(메타노이아)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 더 나아가 전인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전인적인 완전한 변화로서의 회개를 몸소 이루는 사람은 처음 행위를 가진다. 처음 행위의 회복은 회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행위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없다.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 **마 3:8 -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요 15:8 -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4)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 - 생명나무의 열매. 계 2:7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몸 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명확히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가정, 교회,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이며, 이 때 이기는 것은 계속해서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적 승리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연상하게 한다(창 2:9).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 나무 열매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믿음 가운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에게 생명나무 열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승리하는 신앙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신앙이다.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영성과 삶을 지키게 할 것이다. 올 한 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로 주를 더 잘 섬기며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자.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우리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기관들이 올 한 해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 승리를 얻으며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옵소서.

3.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